

# 시대적 난해성을 농촌 풍경화로 풀어내다

## 그림으로 농사짓는 화가, 박문중

2023허백련미술상 수상작가 전시 광주시립미술관·의재미술관 주최 내달 1일부터 12월25일까지 55일간 초창기 작품부터 최신작까지 65점

“‘농경도’라는 용어를 직사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여러 번 돌아가며 풀어내는 게 작품세계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문중 작가는 30일 광주 동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열린 ‘2023 허백련미술상 수상작가 전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소개했다.

박문중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과 의재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기획초대전의 작가로 선정됐다. 2023 허백련미술상 수상작가 전시 ‘그림으로 농사짓는 화가, 박문중’전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25일까지 55일간 의재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 작가가 바라보는 농촌과 인간,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되짚고 오랜 세월을 걸쳐 쌓아온 예술적 철학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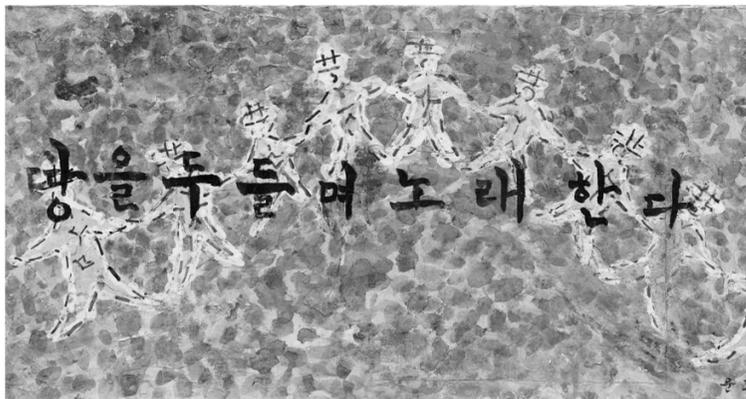
허백련미술상은 의재 허백련(1891-

1977)의 예술가, 교육가, 사회운동가로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예술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제정돼 그동안 장우성(1995 본상), 김기창(1996 본상)을 비롯해 걸출한 한국 서화가들이 이 상을 받았고, 올해는 수상작가 전시를 의재미술관에서 열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

박 작가는 지난 1980년대 격동의 시대를 겪고 수그러진 세상을 맞이한 1990년대 농경·농촌을 소재로 한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시대의 울분과 그 울분이 토해낸 적막함을 예술로서 담화해 내고 싶었던 그의 다짐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화·판화·평면 화가로 만들었다.

무안에서 태어난 박 작가는 의재 허백련의 연진회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잇고자 1978년에 창설한 연진회미술원 1기생으로 그림에 입문했다. 1980·90년대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필묵으로 표현한 현실주의 수묵화 시기를 거쳤고, 1997년 담양으로 이주한 뒤 그림 작업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는 남도의 자연과 농촌을 배경으로 흙과 인간이 주고받는 서사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하다. 그의 농경에 대한 애착은 화가이면서도 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학교



박문중 작. 땅을 두들며 노래한다(2024).

의재미술관 제공

를 운영한 의재 허백련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박 작가는 이날 “기라성 같은 허 선생으로부터 ‘삶의 무게’를 서체의 깊이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감 대신 먹과 종이, 흙만으로도 그림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무렵, 본격적으로 농촌을 소재로 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일각에선 농부 화가로 평가되지만, 농경지를 소재로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80년대의 광주를 지나 90년대에 들어 서자, 그는 평소 느꼈던 향토적 정서에 무

거움을 털어내고 싶었다고 했다. 이는 그의 작품이 ‘맥락의 일원화’를 이룰 수 있었던 힘으로 작용했다. 다수의 동양화에서 그려지는 산, 안개 등을 구름 밑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공간으로 대체한 그의 작품은 ‘농경도’라는 단어에 대한 집착과 직시가 있어 가능했을 것이다.

이번 기획초대전에서 박문중의 초창기 작품부터 최근작까지 총 65점이 전시된다. 그 중 ‘땅을 두들며 노래한다’(2024)는 농가월령가 중 3월령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인간이 씨를 뿌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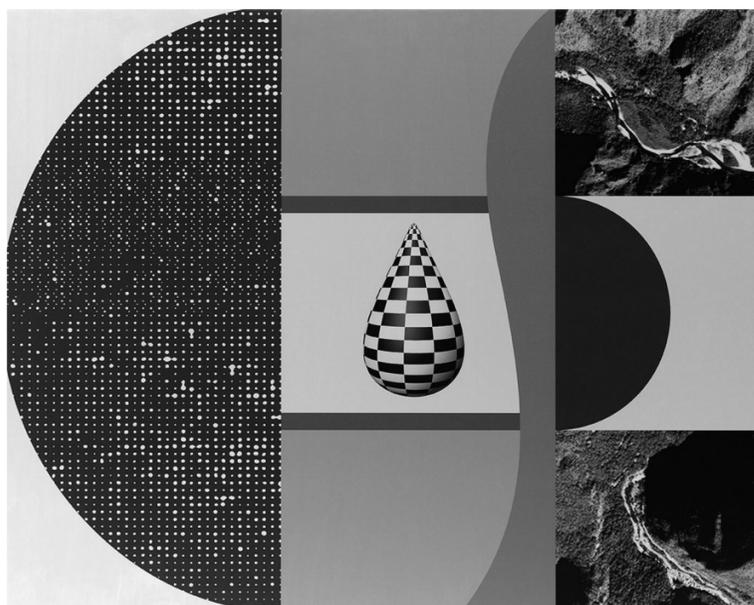
가꾸고 거두는 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작가의 경작에 대한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가가 이번 전시를 기념해 그린 ‘춘설현’(2024)은 의재 허백련에 대한 경의를 담은 작품으로 의재의 후학 양성과 창작의 공간이었던 춘설현을 대나무 숲과 매화꽃에 둘러싸인 풍경으로서 한지에 먹, 채색, 흙물을 이용해 간결하게 그려냈다.

그는 벼나 논을 사실적 이미지 대신 지도에서 논을 기호인 ‘ㄷ’을 사용하는 데 2017년 작 ‘모내기’에는 ‘ㄷ’과 단순화된 인간의 형상이 함께 배치돼 모내기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다.

김정락 평론가는 박문중의 작품에 대해 “진정한 예술은 삶의 밑바닥을 훑어서 건져낸 삶의 절박함이다”며 “이 절박함이 폐부를 꿰뚫을 때 비로소 공감과 연대가 공명한다. 박문중은 그런 화가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25일까지 의재미술관 1, 2, 4전시실에서 열린다. 1전시실에서는 2020년대 작품이 주를 이룬 그의 최신작들을 만날 수 있고 2전시실은 1980~1990년대 작품으로 채워졌다. 넓은 공간의 4전시실은 그의 대형 그림들로 수놓는다. 박찬 기자



조윤성 작 URBAN GRID-서사적 공간.

광주신세계갤러리 제공

## 조윤성 초대전... 격자구조 화면구성으로 풀어내다

### ‘URBAN GRID-COMPOSITION’ 내달 19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광주신세계갤러리는 3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조윤성 작가의 개인전 ‘URBAN GRID-COMPOSITION’ 전을 개최한다.

조윤성 작가는 현대 사회의 시각적 환경을 대비 관계를 중심으로 재해석해 작품 세계를 펼쳐왔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새로운 자연이 된 도시환경(URBAN)의 근간을 이루는 격자구조(GRID)를 주제로 삼고 화면구성(COMPOSITION)을 중심으로 풀어낸 새로운 연작을 선보인다. 시선과 사유라는 필터를 걸쳐 회화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조윤성 작가의 작업은 여타 작업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만들었다.

‘빌딩 숲’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도시와 그 안을 채운 건축물은 현재 자연 이상으로 친숙한 환경이 됐다. 조 작가는 이를 재해석하면서 ‘격자’

를 시각적 표현의 중심에 놓았다. 도시 계획과 건축물의 설계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컴퓨터 설계 등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써 창작자들이 활동하는 터전인 동시에 일종의 제약이자 규칙으로 작동하는 격자구조는 시각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작품에 자리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도시 건축물들의 형상을 기반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개념을 차용해 새로우면서도 여딘지 친숙한 화면을 만들어 냈다.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려진 회화부터, 스테인리스와 우레탄 안료 등 도시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를 이용한 작업, 디지털 이미지와 회화를 조합한 작업까지 다채로운 재료와 기법은 앞으로 펼쳐질 ‘어반 그리드’의 다양한 모습을 예고한다.

전시는 광주신세계백화점 본관 1층 갤러리에서 휴점일인 11월 18일 제외하고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신세계갤러리(062-360-163)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 ‘문화누리카드로 함께 누리는 문화생활’ 시범운영 성료

### 국내여행 콘텐츠 등 문화활동 증진 내년부터 참가자 확대 운영 계획

광주문화재단의 ‘문화누리카드와 떠나는 국내여행’ 시범운영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

이번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평소 여행이 어려운 노인 등의 문화활동 범위를 넓히고, 국내여행의 기회를 확대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을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3월 순창발효관광재단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대상 맞춤



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협의를 통해 관광 버스를 제공하고, 관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모집해 순창군을 여행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3차례 운영한 바 있다.

지난 4월 13일에는 광주 동구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 14명, 이달 23일과 24일에는

어동재활원의 장애인 이용자 30명, 소화 누리의 장애인 54명과 순창을 방문해 강천산 트레킹, 고추장 또는 떡 만들기 체험, 식물원 탐방 등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2·3회차는 참가자 모집 및 문화관광 여행 운영 전반이 가능한 국내 여행업체와도 협력해 민관 협력을 통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에 기여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번 민간 협력 문화관광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정기 프로그램으로 편입해 참가자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찬 기자

## 음성해설·수어·문자 통역으로 만나는 ‘접근성 공연’

### ACC ‘막대 똑딱 피지컬-뿔난오니’ 내달 15~17일 어린이문화원극장

ACC 창작제 어린이공연이 접근성 공연으로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1월 15~17일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막대 똑딱 피지컬-뿔난오니’ 공연을 선보인다.

‘막대 똑딱 피지컬-뿔난오니’는 일본

작가 하마다 히로스케의 동화 ‘울어버린 빨강 도깨비’의 교훈에 재미와 감동을 더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오니(おに)’는 일본의 요괴로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상 ‘도깨비’로 번역되고 있지만, 한국의 도깨비와 일본의 오니는 서로 다른 존재이다. 두렵고 낯선 존재로서 관객들이 ‘오니’를 상상할 수 있게끔 ‘도깨비’로 의역하지 않고, 일본어를 그대로 음차해 사용했다.

작품에서는 다양한 소품과 신체 언어를 활용한 2인극으로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색과 모습이 달라 외면받는 빨간 오니가 친구인 파란 오니의 희생을 통해 인간들과 어울리게 되는 내용을 다룬다.

특히 이번 작품은 장애인 관객을 비롯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극장 환경을 제공하는 무대에 공연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11월 15일부터 17일 총 5회 진행되며, 5세 이상이면 무료로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관람권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예매하면 된다. 박찬 기자

## TBN광주교통방송,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2024 기아 동행콘서트 연다

### 내달 3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서 개국 27주년 맞이 특집 공개방송

TBN광주교통방송은 개국 27주년을 맞아 KIA 오토랜드(AutoLand) 광주와 함께 특집공개방송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2024 기아 동행콘서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콘서트는 오는 11월 3일 오후 6시부터 2

시간여 동안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는 TBN광주교통방송과 KIA 오토랜드 광주가 광주시민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을 보답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송인 탁재훈과 박유리 광주교통방송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가수 코요태와 소찬휘, 스페이스A, 이보람, 김현정, 노라조 등이 출연한다.

앞서 KIA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54

만1100대를 생산, 역대 최대 생산을 달성했다. 2014년 53만 8896대를 기록한 뒤 9년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많은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KIA 타이거즈가 프로야구 정규시즌에 이어 한국시리즈까지 제패하며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KIA의 통합 우승은 단일리그 기준 7번째이며, 한국시리즈 우승은 역대 최다인 12번째다. 최동환 기자